

油價인하가 産業界에 미치는 영향

石東業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부 산업조사과〉

최근 정부는 國內 石油類價格을 소비자가격기준 평균 4.7%, 工場度價格基準 평균 5.33% 引下하였다.

이번 油價인하는 지난 6월 이후 OPEC 油價調整 이후 圓貨切上과 國際油價의 하락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 2,015억원의 引下財源 가운데 1,827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 物價安定과 圓貨切上에 따른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약화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유가인하조치는 '86년 2월, 3월, '87년 10월까지 세차례 있어 왔고 올해만도 지난 3월, 6월에 이어 세차례등 도합 여섯차례 유가인하가 단행된 셈이다. 사실 '7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된 탓으로 石油輸出國들의 大幅의 油價引上 때마다 油價인하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 석유위기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그동안 파생되었던 國際市場經濟體制의 歪曲이 점차 해소되고 跛行的 産業구조가 均衡으로 향하는 조정국면을 맞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상승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섯차례의 국내 석유류가격 引下措置는 이러한 經濟的活況을 크게 뒷받침해준 好材로 작용해왔다.

아직도 에너지의 石油依存度가 엄청나게 큰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 유가인하가 물고을 수 있는 가장 큰 經濟的 影響은 한마디로 經濟成長의 促進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가인하는 産業內 生産과 雇傭의 增大를 가져오며, 기업들은 製品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輸出主導의 産業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對外的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輸出增大를 가져오고 國際收支가 改善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가인하는 物價를 安定시켜 경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誘發을 抑制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유가인하는 일국의 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産業구조가 유가인하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産業구조는 輸出志向의 政策遂行에 의해 변화되고 성장하여 왔다. 에너지는 資本, 勞動과 함께 기업의 生産活動에 필수적인 投入要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차에너지소비의 약 45% 이상을('88년 잠정치 46%)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産業구조가 대부분 輸出用 原資材를 輸入하고 있어서 주요원자재, 특히 석유와 같은 기업의 生産활동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인하는 우리 産業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에너지需給構造상 産業부문에서 石油依存度가 비록 小幅下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消費比重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즉 産業용 에너지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7年 52.7%로 높게 나타나 있어서('86年 54.5%) 유가인하로 인해 자연 여타 前後方 連關産業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유가인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經濟를 活性化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유가인하는 物價하락에 기여한다.

유가인하는 기업의 原價를 節減시키고 기업은 원가절감분만큼 商品價格을 낮출 수 있어서 物價는 下落하게 된다. 또한 유가하락은 석유와 경쟁관계에 있는 對替材 性格의 石炭, 가스등의 가격도 하락시킨다.

'86년 2, 3월 두 차례 유가가 인하되었을 때 都賣物價는 '85년에 비해 1.5%하락했으며 '87년 10월중 이뤄진 또한차례의 유가인하는 11月中 도매물가를 전월대비 0.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88년에는 3月中 유가인하로 4月中 도매물가를 전월대비 0.3% 낮추었다.

消費者物價 역시 '87年 10月中 유가인하로 11月中에 전월대비 0.2%낮아졌으며, '88年4月中에는 3月の 유가인하 영향으로 0.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유가인하가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가인하는 生産활동 및 雇傭增大를 가져온다.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生産要素의 價格變化와 設備投資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석유류가격의 인하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生産能力增大와 인플레이션 期待心理의 減退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유가하락은 저렴한 석유가격을 전제로 건설되었던 設備의 稼動을 活性化시키고 또한 유가하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줄어들어 기업가는 이에 자극받아 投資意慾이 고취되어 생산활동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雇傭機會를 擴大시켜 준다.

세째 유가인하는 國際收支 改善에 기여한다.

유가인하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부문은 國際收支 부문이다.

석유가격 하락에 따라 原油輸入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는 그만큼 우리의 實質所得이 석유수출국으로 移轉(Transfer) 되는 것을 막아준다.

사실 1차 석유위기로 석유수출국으로 이전된 금액은 '73年 平均産油導入價格(C&F기준으로 배럴당 2.95달러)이 '8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 기간중 總 導入額은 62억달러에 불과할 것이었으나 실제 도입액은 471억달러에 달함으로써 409억달러가 추가로 석유수출국으로 所得移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2차 석유위기 이후 '85年 사이에는 214억달러의 追加의인 所得移轉이 발생하였다.(에너지 경제연구원 보고서 87.6)

貿易赤字幅 역시 제2차 석유위기가 시작된 '79年과 '80年 각각 前年對比 18%, 54% 擴大되었으며 '82년부터는 유가하락에 따라 貿易收支가 改善, '83년 41%, '84年 15%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와같이 유가인하는 일차적으로는 原油導入費用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總輸入額의 減少와 總輸出額의 增加를 가져온다. 특히 기업들은 生産費를 낮출 수 있어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가인하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정부당국은 이번의 유가인하조치로 都賣物價가 0.73% 가량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物價不安을 얼마간 鎮定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産業界에서는 석유류가격의 조정이 우리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번의 조치가 국제원유가 하락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未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4조원대의 石油事業基金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현행 석유류가격을 상당폭 再引下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함께 하고 있다.

즉, 유가를 5.33%인하하는데 소요되는 財源이 1,827억 원이라고 볼 때 基金運用에 의한 利子收益을 2천억원으로 잡아도 이를 가지고 국내유가를 현재보다 6%정도 인하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또 현재 조성된 石油事業基金만으로도 國內油價를 10年동안 매년 10%씩 낮출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따라서 이번의 유가인하가 국제원유가가 언제 上昇할 지 모르고 국내 石炭業界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폭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 유가인하가 산업계에 주는 波及效果를 생각할 때 석유류가격의 再調整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